

<문제 1>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개인 간에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듯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어진 제시문은 개인의 행위가 사회에 얼마나 변화를 주었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을 개인이 미친 영향의 정도에 따라 그 순서를 나열하면 차례로 (가)(라)(나)(다)가 될 것이다. (가)는 사회에서는 공감하는 능력과 상상력을 두루 지닌 '공평한 관망자'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공평한 관망자는 공감적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원화된 욕구 속에서 개인의 몫을 배분하고 그에 사회체계의 규범이 맞추어져 각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개별적으로 부여되고 희소자원이 각자에게 나누어진다. 이처럼 개인의 욕구가 사회규범으로까지 확장되어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는 시민적 우의를 기반으로 사회 속에서 정책을 채택하는 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라)가 주장하는 바는 선한 개인은 선한사회를 형성하며 개인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사회도 시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명목론의 입장에서 사회는 개인의 총합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특성이 사회전체의 특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라)에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혈연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등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속에서 여러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부여받으며 생활한다. 이렇듯 사회가 제시한 도덕률을 이행하는 등의 태도를 통해 사회가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는 개인은 이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인 존재라고 상정한다. 인간은 개별적으로 볼 때 자신의 이익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이 집단을 이룰 때 'NIMBY'현상과 같은 집단 이기주의 풍조는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의 연관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니부어의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저서에서 주장한 바와 맥락을 같이한다. 결국 사회 실재론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인간이 오히려 사회의 영향을 받아 사회의 특성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 개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문제 2>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의사표현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제 상황에 대한 각 제시문 들의 해결방식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구분지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의 제시문 (가)에서는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 이상적 존재의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충돌의 원인이 되는 이익이나 의무를 나눠줌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에 의해 사회전체가 갈등에서 벗어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관점에서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주변 환경을 인지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주변 환경 속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타인의 이익을 고려한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적절한 역할 행동과 의무를 이행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통해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는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의 상황에서 각 비도덕적인 집단끼리의 이익과 요구가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 속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세력이나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이기심이나 충동을 억제하면서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의 시민적 우의의 개념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덕적 개인을 정치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선한 사회 공동체를 만든다. 이어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선한 집단 전체의 특성을 통해 사회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성향의 선, 즉 우의를 통해 타인의 부도덕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